

# ‘달고나’ ‘떡볶이’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올랐다

### 옥스퍼드대, 한류 단어 7개 추가 내년 ‘빙수·아쭈마·해녀’ 검토 중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떡볶이와 달고나 등 한국어에서 나온 7개 단어를 업데이트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 웹사이트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지난해 12월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달고나’(dalgona), ‘형’(hyung), ‘노래방’(noraebang), ‘막내’(maknae), ‘찌개’(jjigae), ‘떡볶이’(tteokbokki), ‘판소리’(pansori)를 사전에 포함했다.

한국어에서 나온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오른 것은 2021년 9월 ‘K-드라마’(K-drama), ‘한류’(hallyu), ‘떡방’(mukbang), ‘대박’(daebak) 등 26개 단어가 포함된 이후 3년여 만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1884년 처음 출판된 영어권의 권위 있는 사전으로, 현재는 바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영어에서 쓰이는 과거와 현재의 50만 개 단어 및 구문이 뜻, 어원, 예시와 함께 실려 있다. 예시로는 소설이나 논문, 언론 기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에서 실제 사용된 문장이 들어간다. 영어라는 언어가 다양한 뿌리를 가진 말들을 수용하고 발달시켜온 역사가 사전 안에 담겨 있는 셈이다.

- 달고나 (dalgona)
- 형 (hyung)
- 노래방 (noraebang)
- 막내 (maknae)
- 찌개 (jjigae)
- 떡볶이 (tteokbokki)
- 판소리 (pansori)

이번에 포함된 한국 관련 단어들은 한국 음식이나 호칭 등 문화적 의미가 깊은 것으로, 특히 영어권에서 큰 인기를 끈 ‘K-컬처’와 관련된 것이 많다.

‘달고나’에는 “죽인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만든 한국 사탕과자로 보통 노점상에서 하트, 별 등 간단한 모양이 조각된 납작한 판형으로 판매된다”는 설명이 달렸다.

2022년 10월 보스턴 글로브에서 발췌한 “넷플릭스는 달고나 사랑으로 팬들이 몰리게 한 한국의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막 선보였다”는 예문도 제시됐다.

‘막내’에는 “한 가족이나 그룹에서 가장 어린 사람. K-팝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라는 설명이 적혔다.

‘떡볶이’는 “고추장으로 만든 매콤한 소스로 요리한 작은 원통형 떡으로 구성된 한국 요리로, 보통 간식으로 제공된다”고 설명돼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영어 단어를 골라 실는 만큼, K-컬처가 실제로 얼마나 세계에 확산했는지 드러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국어 컨설턴트인 조지은(영국명 지은 키어)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는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 언급, 거론되고 그 증거가 텍스트로 남아 있는 말들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K-팝, K-드라마를 통해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단어를 많이 접하고 사용하게 됐다”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성기훈(이정재 분)이 친형제가 아니라라도 ‘형’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는 걸 알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

앞으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리는 한국 관련 단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해녀’와 ‘아쭈마’, ‘빙수’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 교수는 “한국 관련 단어가 앞으로 해마다 업데이트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 음식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알립니다

### 제69회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합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69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표어 공모전
  - 출품규격 및 출품작 수 : 20자 이내, 개인별 2점 이내
2.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전
  - 출품 규격
    - 캐릭터 형태 : 기본형 앞, 뒤, 좌, 우 4종
    - 제출 파일 확장자 : JPG, PNG, PDF 파일 (손그림 제외)
  - 출품작 수 : 개인별 2작품 이내

※ 표어·캐릭터 응모 방법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 참고  
 ※ 시상 내역 (표어·캐릭터 각각 선정 및 시상)  
 ○ 대상 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 공모기간 : 2025년 2월 28일(금) 17:00까지  
 ○ 발표 : 3월 중순 이후 수상자 개별 통보  
 ○ 시상 :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 대회  
 ○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02-730-0199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光州日報社

## 北 극초음속 미사일로 ‘방어망 무력화’ 자신감...합참 “기만 가능성”

### 전문가 “러시아와 기술 협력”

북한이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은 7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형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활공체(HGV)를 탑재한 기종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면서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비롯한 현대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대부분 탄도 궤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빈틈을 파고드는 시도에 해당한다.

이에 상대의 전쟁 억제력을 파괴하는 무기인 만큼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하며, 이날 북한 또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수단, 즉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라고 묘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으려는 러시아·중국 등에서 선제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섰고 실전 사용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북한의 ‘성공 주장’ 역시 검증이 필요한 지점이다.

북한 미사일의 전반적 비행 자세는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한미 군과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고 전해졌다. 관건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비행 특성을 보였는지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차 정점 고도 99.8km, 2차 정점 고도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했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북한이 실제로 2차 정점, 즉 비행 중 궤도 변경에 성공했다면 기술적 진전에 해당한다. 다만 두 차례의 상승·하강은 극초음속 미사일로서는 부족한 횟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 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가 사용됐다”고도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가 희박한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일반적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 내로 비행하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저항과 마찰에 강한 신소재 적용이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총공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 숙대,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 본인에 결과 통보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숙대에 따르면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숙대는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과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국회 특위 구성...위원장 권영진

### 국힘 7·민주 7명 등 총 15명

여야는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여야 간 합의로 가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인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유가족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